

전일동향

전일대비 13.70원 상승한 1,527.10원에 마감

18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1.60원 상승한 1,525.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연준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해 전일대비 13.70원 상승한 1,527.1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6.07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25.00	1528.10	1519.30	1527.10	1523.40
	엔화	941.89	957.26	941.67	946.07	-
	유로화	1740.42	1767.57	1740.11	1749.64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2	-3.45	-7.58	-16.19
	결제환율(수입)	-0.25	-2.11	-5.35	-12.6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강달러에...1,5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27.10) 대비 11.10원 상승한 1,537.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긴축 우려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에 상승 전망한다. 최근 유로존 ECB와 일본 BOJ의 실제 금리 인상, 간밤 영국 BOE의 매파적 스탠스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정책 경로는 긴축으로 기우는 가운데, 미국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면서 달러 외 주요 통화들은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달러/엔 161엔선 진입은 원화에도 약세 동조 압력을 가하며 금일 환율 상승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6만건으로 전주치(23.0만건) 대비 감소하며 양호한 노동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금일 달러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미-이란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과 미국 증시 반등은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금일 국내증시에서 반도체주 중심 순매수 이어질 가능성은 상승을 억제할 요인으로 판단되며, 외환당국 경계감과 수출업체 고점 매도물량 역시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27.50 ~ 154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776.2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10원 ↑
	■ 美 다우지수 : 51564.7, +72.15p(+0.1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5.1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96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